# 순천, 기독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도전

### 광주 남구·공주시 등 8개 지자체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내일 출범식 개최···"독창적·국제적 관광 브랜드로 발전"

계유산 등재에 나선다.

18일 순천시에 따르면 20일 광주 양림 는 것을 목표로 한다. 동에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 회 출범식을 갖는다.

구, 대구 중구, 청주시, 공주시, 전주시, 목 8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힘

순천시가 기독교 선교기지 유네스코 세 협의회는 대한민국 각지에 있는 기독교 선 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

20일 광주 양림동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 조대 협의회를 이끌어 갈 협의회장을 선출 하고,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상 출범식에는 순천시를 포함해 광주 남 호협력 업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포시, 김제시까지 8개 지자체가 참여하며, 을 모은 이유는 아시아 지역의 개신교 선 개신교 유적의 중요성을 찾아가는 큰 의미



교 역사가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례가 없어. 우리나라에 전파된



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.

유산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도 전국 각지의 선교기지가 잘 보존되고 있어

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 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.

일본, 한국 순으로 기독교 선교문화가 전 파됐었지만 유산의 성격을 가장 잘 지키면 사례로 평가된다.

국가유산청의 '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보고서'에 따르면 전국의 선교기지는 조성 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면서 주요 건축물 대부분이 문화유 산으로 등록·관리되고 있어 세계유산 등 재에 필요한 '진정성'과 '완전성' 조건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.

# LOCAL

#### 2025년 6월 19일 목요일

순천시 관계자는 "기독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이미 세계 실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와 중국, 유산으로 등재된 '산사, 한국의 산지승원 (선암사)', '한국의 갯벌(순천갯벌)'과 연 계해 순천만의 독창적인 역사·문화·생태 서 신앙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첫 번째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관광 브랜 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"고 말했다.

> 한편 순천선교부는 1913년 설립돼 교육 ·의료·복음 전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 한 선교 활동을 펼쳤으며, 현재 순천 구 남 장로교회 조지와츠 기념관, 순천 매산중학 교 매산관,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 등 13개의 유산이 남아 있다.

> > 순천=박칠석 기자 2556pk@gwangnam.co.kr

## '광양형청년친화도시' 조성 본격 나선다

####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…5개년 중장기 청년정책 수립 착수

광양시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 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 될 제2차 광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해 '광양형 청년친화도시' 조성에 나선다.

광양시는 최근 김기홍 부시장 주재로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'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.

보고회에서는 내년부터 5개년간 적용 을 위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.

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경제연구 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 점검하고, 실효성 원과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'청년 있는 '광양형 청년정책'을 새롭게 발굴해 구체화할 계획이다.

김기홍 부시장은 "광양시의 강점을 최 추진 중이다.

대한 부각시키고, 심층적인 청년 실태조 사와 청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효성있 는 정책을 수립해달라"고 주문했다.

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'청년친화헌정대 상' 소통대상 수상, 청년 인구 순유입 증 가,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부문 10년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제1차 청년정책 연속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며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왔다. 이를 바탕으로 시 는 현재 '고향올래 청년복합공간 조성사 업'과 '청춘스케치마을 2차년도 사업'을 광양=김귀진 기자 lkkjin@



### 여순10·19사건 홍보관 여수 신월동에 개관

### 연면적 219㎡ 규모···전시실·학습실 등 구성

여수시는 18일 여순10・19사건 홍보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

여순10·19사건 홍보관은 여순사건 희 여 연면적 219㎡ 규모로 조성됐다. 생자를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 연대 주둔지에 건립됐다.

공원과 평화재단 유치의 당위성을 마련하 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

홍보관은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을 들

여순사건의 발생 배경부터 진상규명을 립하기 위해 사건 발생지인 신월동 제14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과 여순사건 전문가 양성 과 하고 연중 상시 운영되며, 시간은 오전 9 특히 향후 추진될 여순10·19사건 평화 정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학

습실로 크게 구성돼 있다.

전시실에는 여순사건 전문 해설사가 상 주하며, 질의응답을 통해 방문객들의 깊 이 있는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.

정기명 시장은 "홍보관은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여순10 • 19사 건 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"고 말했다.

홍보관은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 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. 여수=송원근 기자

### 공영민 고흥군수, 국회 방문 예산확보 총력 대응

### '우주선 철도' 건설 등 주요사업 6건 지원 요청

공영민 고흥군수가 고흥군 핵심 사업 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 과의 전방위 협력 행보에 나섰다.

18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공영민 군수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'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' 참석에 앞서 국회의장과지역구및관련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흥군 의 중점 현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

면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, 문금주 의원(고흥・보성・장흥・강진), 안규백 의원(서울동대문갑), 문대림의원(제 주시 갑) 등이 참석했다. 공 군수는 이 질 주요 SOC 및 전략사업에 대한 설명



공영민 고흥군수가(왼쪽)가 국비 확보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후 기념사진을 촬영

피력했다

자리에서 고흥군의 미래 성장기반을 다 선 철도 건설(국가계획 반영), 광주~ 트 공동물류센터 건립(200억원), 국방 고흥 고속도로 건설(국가계획 반영), 우주발사 시험시설 구축(460억원) 등

(5142억원), 국립 고흥 다도해 산립치 군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고흥 우주 유원 조성(1002억원), 녹동신항 스마 과 함께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강력히 국도 15호선 고흥~봉래 구간 확장 6건이다. 고흥=김두성기자 kds081177@

### 담양, 영상기록물 디지털 변환 서비스

### 23일부터 선착순 50명

잇는 '아날로그 영상기록물 디지털 변환 서비스'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.

상으로 되살려 가족과 함께 TV, 컴퓨터, 스마트폰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로, 변환할 테이프와 USB 또는 외장하드 겠다"고 말했다.

위해 추진됐다.

변환 대상은 돌잔치, 결혼식, 회갑연, 의가 필요하다. 체육대회 등 개인・공동체의 기록이 담긴 1인당 최대 2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이번 사업은 과거의 감동을 디지털 영 며, 선착순 50명 접수 시 조기 마감된다.

등 저장매체, 신분증을 지참해 담양군청 미래성장동 2층 기록관을 방문하면 된다.

변환된 영상을 군에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 사본의 활용에 대한 동

군 관계자는 "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의 담양군은 군민의 소중한 과거를 현재로 VHS, 6mm, 8mm 캠코더 영상테이프이며, 소중한 순간들이 다시 살아나 군민 간 웃 음과 감동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"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이 며 "기록은 과거를 넘어 세대를 잇고 공동 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자산인 만큼, 앞으 신청 대상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 로도 군민과 함께 기록문화 확산에 힘쓰 담양=조성웅 기자

